



강화형 전부도재관을 이용한 전치부 기형치의 심미수복

성 동 환*, 박 찬 운, 안 승 근, 박 주 미 |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전치부 치아는 심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. 그러나 기형치가 존재하는 경우 심미성은 사라지게 된다. 일반적으로 치아의 발육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, 치아의 발육장애는 발육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. 장애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조직 형태학적, 임상적인 양상이 달라진다. 발육 단계 중에서 조직-형태 분화기에 이상이 오는 경우에는 치질의 이상, 치아 형태의 이상 및 치아 크기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다. 치아 결손은 치배 형성기나 치배 증식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. 치아형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치아배열이 심미적이지 않고, 인접공간의 과잉이나 부족으로 총생이나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. 치아들이 적절하게 배열되었다면, 고정성 보철물만으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, 총생이나 공간이 있는 경우 외과적 발치 또는 교정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한 치아의 재배열 후에 고정성 보철 수복을 시행하여야 한다. 치아 결손이 있는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심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.

최근 심미수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심미수복 재료와 수복방법이 소개되었는데, 1980년대 초반부터 임상에 적용된 전부도재관 system은 뛰어난 생체 적합성과 색조 재현성 및 반투명성을 지녀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.

본 증례는 상악 전치부 기형치 및 하악 전치부 결손으로 인해 비심미적인 환자에서, 교정 치료를 시행하여 조화로운 치아배열을 얻고 강화형 전부도재관을 이용하여 상악 전치 및 하악 전치를 수복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심미적인 성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